

해남 선비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정 성 일**

【국문초록】

1662년 해남 선비 김여휘와 제주 사람이 포함된 32명의 조선인이 해난 사고를 당하여 유구국 아마미오시마로 표류하였다. 그들은 9월 24일[서력 11.4] 제주 별도포를 출발하여 해남으로 향하다가 추자도 부근에서 서북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하여 10월 5일[서력 11.15] 유구인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들 중 4명은 그들의 동료가 구조되기도 전에 배 안에서 목이 말라 숨졌다. 생존자 28명은 그곳에서 사쓰마로 이송된 뒤 나가사키에서 조사를 받고 대마도로 넘겨졌다. 1663년 5월 27일[서력 7.2]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김여휘 일행은 다시 심문을 받았다. 일본에서 모든 조사 일정을 마치고 그들이 부산포로 건너온 것은 7월 5일[서력 8.7]이었다. 왜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그들은 부산첨사와 동래부사에게 인계된 뒤에도 마지막으로 조선 측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김여휘 일행이 고향 해남으로 돌아온 것은 7월 25일[서력 8.27]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4월 17일[서력 5.23]에 이미 사망하고 말았다. 이 해난사고는 1663년 한·일 간 울릉도 쟁계와 관련되어 있는 안용복의 제1차 도항, 그리고 1802년 문순득의 유구 아마미오시마 표류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과제번호 KRF-2009-32A-A00013).

** 광주여자대학교

【주제어】

김여휘, 해난사고, 표류, 조선, 해남, 제주, 유구, 아마미오시마, 일본, 사쓰마, 대마도, 나가사키

◆ 차례

1. 머리말
2. 김여휘와 그 일행
3. 김여휘 일행의 항해 목적
4. 김여휘 일행의 해난사고 경위
5. 김여휘 일행의 표착과 구조
6. 김여휘 일행의 귀국과 송환 경로
7.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으로 표류한 조선인, 조선으로 표류해 온 일본인 중에서 조선의 士族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公務를 수행하다가 표류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할 사례는 공무와는 거리가 먼 경우이다. 해남의 사족 출신인 김여휘(金麗輝, 金汝輝)를 비롯한 전라도 주민이 대기근을 이겨내기 위하여 장사를 나섰다, 1662년에 琉球王國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로 표류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 김여휘 일행의 표류는 1802년 전라도 출신 문순득(文淳得, 文順得)의 표류보다 140년 정도 빠르다. 또 문순득은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김여휘는 1663년 사쓰마와 나가사키,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귀국하였다. 이들의 해난사고 경위와 경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전라도 사람들의 해상 활동과 해난에 대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더구나 1663년은 안용복 사건으로 잘 알려진 鬱陵島 爭界가 발생한

해이다. 따라서 以配庵 승려들이 조선인의 해난사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을 김여휘 일행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안용복 사건에 대한 대마도의 처리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김여휘와 그 일행

기존 연구에서도 김여휘 일행의 해난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¹⁾ 다만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와타나베 미키[渡辺美季]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는 일본 天理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外聞見錄』의 「記琉球漂還人語」를 처음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²⁾ 김여휘 일행의 해난사고 배경은 1661~62년 호남지역의 극심한 기근이었다.³⁾ 당시 해남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제주로

- 1) 이훈, 「조선후기 표민의 송환을 통해서 본 조선·유구 관계」, 『사학지』 27, 단국대학교 사학회, 1994, 123쪽, 126쪽 ; 손승철, 「朝·琉 교린체제의 구조와 특징」, 『조선과 유구』, 도서출판 아르케, 1999, 37쪽 ; 李薰(松原孝俊·金明美 옮김),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の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歷代宝案研究』 8, 1997, 4-6쪽 ;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부록 近世朝鮮人の日本漂着年表 C15, 臨川書店, 1998, 9쪽 ;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歷代宝案研究』 9, 1998, 91쪽 ; 赤嶺守 監譯, 『朝鮮と琉球—歴史の深淵を探る—』, 榕樹書林, 2011, 25쪽 ; 劉序楓, 「清代前期の朝鮮與琉球—以朝鮮人的琉球漂流紀錄爲中心」, 『第十二屆中琉歷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香港 北京圖書出版社, 2010, 102쪽.
- 2) 渡辺美季, 「朝鮮人漂流民の見た「琉球」—1662-63年の大島—」, 『沖繩文化』 46-1, 2012.
- 3) 호남 진흥어사 이숙은 “초봄에 벌써 각 고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42명, 전염병으로 죽은 이가 998명, 앓고 있는 자가 6,14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1661년 말부터 1662년 초에 호남지역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실록』 현종 3년(1662) 2월 신유(17일).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 김여휘의 신분

문순득은 흑산도 ‘홍어 상인’ ‘홍어장수’로 알려져 있다.⁴⁾ 이에 반해서 김여휘는 해남의 ‘선비’로 추정된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를 단지 해남 사람 즉 ‘海南人’으로만 적었다.⁵⁾ 이들을 조선으로 송환해 준 대마도주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낸 외교문서[서계]에는 그것이 ‘해남현 표류민’으로 되어 있다.⁶⁾ 그런가 하면 김여휘 일행을 ‘海南漂人’ 또는 ‘海南漂風人’이라 기록하기도 하였다.⁷⁾

『표인영래등록』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라는 의미로 ‘海南品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⁸⁾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유구로 표류했다가 돌아온 해남 사람을 조사했던 조선 정부의 관료가 김여휘를 일반 인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게다가 ‘유구로 표류했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의 「記琉球漂還人語」는 김여휘를 ‘해남현의 선비」[海南縣士]라 적고 있다.⁹⁾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4) 하우봉, 「문물 교류와 상호 인식」, 『조선과 유구』, 도서출판 아르케, 1999, 293쪽 ; 서미경, 『홍어장수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 북스토리, 2010, 58~59쪽 ;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2012, 99쪽 ; 김정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126쪽 ; 赤嶺守 監譯, 앞의 책, 178쪽.

5) 『현종실록』 현종 4년(1663) 7월 경오(5일) ; 『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1663) 7월 신미(6일).

6) 『동문회고』 附編 권 29 漂風(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동문회고』 3, 1978, 2310~2311쪽).

7) 『변례집요』 제3권, 漂差 附漂民 順付 刷還(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변례집요』 상권, 재판, 1984, 152쪽) ; 『현종실록』 현종 4년(1663) 7월 경오(5일) ; 『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1663) 7월 신미(6일).

8) 『표인영래등록』 제2책, 계묘 7월 13일(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표인영래등록』 1, 1993, 397쪽).

『金麗輝等漂海錄』에는 그가 ‘버슬하지 않은 유생’을 의미하는 ‘幼學金麗輝’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여휘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¹⁰⁾에서 머물렀을 때, 그곳에 파견된 사쓰마의 관리였던 長吏와 그가 필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¹¹⁾ 대마도 기록에도 김여휘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문이 실려 있다.¹²⁾ “일본에서 (김)여휘 등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매우 후대하였으며 別船으로 송환하였다”고¹³⁾ 실록에 적혀 있는 것도 김여휘 등 몇몇 해남 선비들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김여휘가 당시 남긴 일기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순득의 구술에 기초하여 丁若銓이 지은 『漂海始末』이 李綱會의 문집 『柳菴叢書』에 실려 있다.¹⁴⁾ 이렇듯 ‘(김)여휘가 남

9) 『海外聞見錄』, <記琉球漂還人語>(일본 天理大學圖書館 今西文庫, 제 2678호 0929-11).

10)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란 아마미제도[奄美諸島]에 속하는 여러 섬을 가리킨다. 이곳은 오키나와현[沖繩縣]과 가까운 곳이지만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소속이다. 과거 琉球王國의 영토였던 이곳이 1609년 일본 사쓰마번[薩摩藩]의 유구 침공 이후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성일, 「일본인으로 위장한 유구인의 제주 표착—1821년 恒運 등 20명의 표착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37, 한일관계사학회, 2010, 182쪽).

11) 1662년 10월 8일 김여휘 일행이 오시마[大島]로 옮겨진 뒤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부터 날마다 서찰을 주고받았고, 묻고 말하기를 하루에 왕복하였으며, (김)여휘가 법을 완화하여 놀러 다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장리가 포구 앞을 거닐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自此每日書札 問訊往復一日 麗輝請寬法遊覽 長吏許令步往前浦 任意徘徊).” 『海外聞見錄』, 『記琉球漂還人語』.

12) 『(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9일(일본 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宗家文庫 日記錄 Aa-1 14).

13) 日本知麗輝等非常漢 待之甚厚 以別船載還(『현종실록』 현종 4년(1663) 7월 경오(5일)).

14) 최성환, 「『유암총서』의 내용과 ‘문순득’ 재조명」(정악전·이강희, 『柳菴叢

긴 일록을 토대로 하여 그 시말을 적었다(麗輝有日錄 記其始末)’고 하는 「기유구표환인어」가 편자 미상의 『해외문견록』에 실려 있다. 이와 함께 「김여회등표해록」을 비롯하여 몇 편의 글을 함께 엮은 고서가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¹⁵⁾

2) 그 밖의 일행

1662년 유구로 표류한 해난사고의 등장인물 중에는 해남 ‘선비’ 김여회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다. 먼저 『표인영래등록』에는 李挺時와 南仁이 김여회와 함께 유구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¹⁶⁾ 다만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 외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표류했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記琉球漂還人語」에는 이 밖에도 몇 사람이 더 등장한다. 즉 ① 김여회의 아들 處西와 ② 여회의 제자 李世峻, ③ 같은 지역의 선비 李挺時, ④ 良人 朴禮元이 그들이다. 이 네 사람은 김여회와 같은 해남 사람들로 보인다. 1661년에 남녀 29명이 호남지역의 기근을 피해 해남에서 제주로 들어갔을 때 이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¹⁷⁾ 「기유구표환인어」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들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다. ⑤ 이덧쇠[李加叱金]와 ⑥ 남인(南麟, 南仁)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남인은 제주 사람이 확실하다.¹⁸⁾ 이처럼 1662년의 해난사고와 관련해서, 김여회를 포함하여 모두

書』, 신안군향토사료지, 신안문화원, 2005), 9~10쪽 ; 최성환, 앞의 책, 33쪽.

15) 「金麗輝等漂海錄」 외에 「愁誠誌」, 「江都錄」, 「相思洞錢客記」, 「柳與梅爭春說」 등이 함께 실려 있는 이 책을 펴낸 사람과 연대는 알 수 없다. 현재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기대된다.

16) 영인본 『표인영래등록』 1, 397쪽.

17) 歲在辛丑 湖南大飢 … 男女并廿九人 流入濟州(「記琉球漂還人語」).

18) 明年壬寅九月 得商人李加叱金船 與濟州人南麟等 合三十二人同載 二

7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남과 제주 출신 조선인 남녀 32명 가운데 사망자 4명(남 2, 여 2)을 제외한 28명이 유구 표류 후 사쓰마와 나가사키, 대마도를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대마도의 일기를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존자 28명 중 남자가 24명 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8명 가운데 5명—金麗輝, 李挺時, 南仁, 여자 2명—의 움직임이 그 일기 속에 나타나는 점이 그것이다.¹⁹⁾ 그런가 하면 이때의 해난 사고와 관련된 두 종류의 표해록을 비교해 본 결과,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령 김여휘의 아들이 「김여휘등표해록」에는 金處世로 되어 있고, 김여휘의 제자가 李南峻으로 적혀 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유구표환인어」에는 각각 處西와 世俊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갔던 선박의 주인이었던 이덕쇠는 해남 사람인데 제주를 오가며 장사하러 제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朴禮元처럼 두 기록에 모두 이름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기유구표환인어」에는 등장하지 않고 「김여휘등표해록」에만 보이는 사람도 있다. 먼저 良人 신분으로는 朴奉弼, 洪春立, 朴命生, 徐後玄 등이 그들이다. 金春儀처럼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가족이 함께 탄 경우도 있었다. 이들 외에 私奴와 寺奴 등 노비 출신들도 동행하였다. 私奴 가운데는 그의 처와 다섯 살 먹은 딸이 동승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寺奴 중에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 더구나 김여휘 일행이 탄 배에는 사람만 탄 것이 아니었다. 그 배에는 牛馬 20여 필이 함께 실려 있었다.²⁰⁾

十四日朝 發別刀浦(「記琉球漂還人語」). 그런데 남인이 『표인영래등록』에는 南仁으로, 「기유구표환인어」에는 南麟으로 되어 있다.

19) 『(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9일.

20) 牛馬并二十餘匹 并載於此船(「金麗輝等漂海錄」).

3. 김여휘 일행의 항해 목적

1661년에 제주로 들어간 김여휘 등 해남 사람들은 그곳에서 결식하기도 한 모양이다. 주로 실록에 그런 기사가 적혀 있다. “때마침 닥친 기근 때문에 탐라²¹⁾ 즉 제주²²⁾로 들어가서 빌어먹었다”는 식의 표현이 그것이다. 『표인영래등록』에도 그들이 “전년도[1661년]의 기근 때문에 생계를 잇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6월쯤 제주로 들어가 결식을 했다”고 적혀 있다.²³⁾ 그런데 『변례집요』에는 “곡식을 사기도 하고 결식하기도 하였다”고 했다.²⁴⁾ 이것은 김여휘 일행이 제주에서 마냥 결식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곳 사람들과 거래를 하여 곡식을 구해서 연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여휘와 함께 표류한 사람들이 모두 처음부터 그와 똑 같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한 해 전에 어떤 사람은 그 해에 들어왔다고 한 것을 보면,²⁵⁾ 해남 사람들이 제주로 건너간 것도 각기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들이 제주에서 결식을 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여휘의 경우는 조금 처지가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여휘는 제주 東門에 있는 訓導[송득운]의 집에 사는 사람과 안면이 있어서, 그의 추천으로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김여휘가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그 대가로 김여휘는 좁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한다.²⁶⁾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기근에서 벗어

21) 因歲飢入耽羅丐食(『현종실록』 현종 4년(1663) 7월 경오(5일)).

22) 因歲飢入濟州丐食(『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1663) 7월 신미(6일)).

23) 上年飢饉中 計活無路 六月分 入往濟州(영인본 『표인영래등록』1, 398쪽).

24) 或爲買穀 或爲乞食(영인본 『변례집요』 상, 152쪽).

25) 或於上年入來 或於其年入來(『金麗輝等漂海錄』).

26) 二十一日早朝 到泊濟州別刀浦 下陸地接 於東門內居 訓導宋得雲家居 人 知麗輝業仗致文 爲子弟 訓才致 請留在勤 麗輝許諾 因留其處 遠近

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다. 김여휘는 그의 제자 이남준[이세준] 등과 협의하여 배를 빌려 제주를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배를 가진 해남 상인 이덕쇠를 만나 비로소 김여휘 일행이 해남으로 함께 돌아가기로 약속하였다.²⁷⁾

그런데 김여휘가 그 전년도에 그의 아들과 제자와 동행하여 해남에서 제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조선과 일본의 기록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 기록이란 「김여휘등표해록」이라는 조난자 쪽의 표해록을 가리키고, 일본 기록은 대마도에서 조선 표류민을 심문한 조사기록을 말한다.

먼저 「김여휘등표해록」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따르면 김여휘와 그의 아들 處世[西], 그의 제자 李南峻[世峻] 등 세 사람이 기근을 당해 곡물을 조달하고자 길을 떠났다고 한다. 신축년[1661] 9월 18일 강진현에 사는 상인 李介山의 배를 타고 세 사람이 南堂浦에 닿았다. 19일 승선하여 21일 아침 일찍 제주 별도포에 내렸다고 되어 있다.²⁸⁾

이에 반해서 대마도의 「(國元)每日記」에 따르면 그해[1661년] 6월 11일[일본 6.10, 서력 7.6] 김여휘 일행이 청산도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곳은 섬이 작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들은 6월 29일[일본 6.28, 서력 7.24] 제주도로 들어갔다고 했다.²⁹⁾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조선에 2년 연속 큰 가뭄이 들어 도저히 해남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자신들이 생계를 위해 책을 버리고 집

諸生雲集 受學日 以講習爲事 經營斗粟(「金麗輝等漂海錄」).

27) 與南峻等 相議方理 賃船出來意中 同鄉人李加叱金 因貿販入來 治裝卜日 約與同歸(「金麗輝等漂海錄」).

28) 辛丑九月十八日中 康津縣居 商人李介山船 入往三人 偕到南堂浦船所 十九日乘船 二十一日早朝 到泊濟州別刀浦(「金麗輝等漂海錄」).

29) 前年六月十一日 乘船發向青山 貿穀乞食 而小島之中 不能久住 故六月廿九日間 移去濟州. 『(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9일.

과 땅을 팔아 곡물을 구하고자 고향을 나섰다고 답변하였다.³⁰⁾

이처럼 두 기록의 내용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그들이 곡물을 조달하려 했다는 점은 같지만, 김여휘 일행의 이동 경로는 차이가 많다. 과연 그들이 청산도를 거쳐서 제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일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들이 대마도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청산도를 경유지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들의 해난사고 경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4. 김여휘 일행의 해난사고 경위

1662년 9월 24일[서력 11.4] 해남 사람 김여휘 등과 제주 사람 남인 등이 동승한 ‘이덧쇠’의 배가 제주 別刀浦—제주특별자치도 禾北洞—를 빠져나갔다. 포구를 떠난 배가 아직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중간 쯤에 이르렀을 때, 김여휘 일행이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났다고 한다.³¹⁾ 이때가 음력 9월 하순이었으니,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 그들의 항해를 가로막고 결국 망망대해의 표류로 이끈 셈이다.³²⁾

30) 朝鮮國 國運不行 兩年大大旱 忍民不聊生 故臣等全羅道海南縣人 生計板蕩書 賣家藏田地 買穀事. 『(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9일.

31) 明年壬寅九月 得商人李加叱金船 與濟州人南麟等 合三十二人同載 二十四日朝 發別刀浦 中流遇西北風(『記琉球漂還人語』).

32) 전라도 억류 생활을 끝내기 위해 탈출을 감행한 하멜 일행이 여수에서 떠난 날짜는 1666년 8월 6일[서력 9.4]이었다. 그들이 이 날을 잡은 것은 이때가 계절이 바뀌어 대륙에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정성일, 「교류의 경로와 풍경」,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92쪽; 신동규,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2007, 274쪽; 헨드릭 하멜 著, 이병도 譯註, 『하멜漂流記—附 朝鮮國記—』, 일조각, 1954, 58쪽; 헨드릭 하멜 著, 김태진 譯, 『하멜일

이때 별도포를 김여휘 일행과 함께 떠난 배는 한 척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침밥을 먹은 뒤 제주를 떠난 배 두 척이 동시에 출발하였는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해 준다.³³⁾ 또 바람도 한 방향으로만 계속 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오 무렵 중류에 이르렀을 때 남풍이 갑자기 불어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옥과 같았다고 한 것을 보면,³⁴⁾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추자도 조금 못 미친 곳에 이르렀을 때 바다가 어두컴컴해지더니 바람 방향이 남풍에서 서북풍으로 변하였다고 한다.³⁵⁾

배가 강한 북서풍에 손쓸 겨를이 없이 밀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여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배가 청산도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도 앞바다에 있는 조도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로 자기주장을 펴느라 모두가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³⁶⁾ 이때 김여휘는 중국으로 표류했다가 돌아온 최부의 경험을 들먹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 “무안이나 강진 사람이 일본으로 표류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구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면서,³⁷⁾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1653~1666』,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55쪽).

33) 朝飯後 離發濟州 船二隻 同時發程 或先或後(『金麗輝等漂海錄』).

34) 亭午 到中流 南風緊作海濤如玉(『金麗輝等漂海錄』).

35) 未及楸子島 … 海氣昏冥 驟而交作 自南之風 變爲西北(『金麗輝等漂海錄』).

36) 船中人 或言宜向青山島 或言宜向鳥島 … 從李加叱金 朴禮元等 齊聲高叫(『金麗輝等漂海錄』).

37) 務安康津民人等 漂到彼邦[日本] 而彼邦之人 不加殺戮 護返本國云(『金麗輝等漂海錄』).



동아시아 해역의 해류와 구로시오

김여휘 일행이 탄 배는 남쪽 큰 바다 쪽으로 몇새 동안이나 표류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탄 배가 바닷물이 마치 먹처럼 검게 보이는 검은 바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곳은 구로시오[黑潮]가 지나는 곳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곳의 물 색깔을 관찰하는 김여휘의 모습이 흥미롭다. 그가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가까이 들여다보았는데 보통 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 흰 것에 물을 통과시켜 보았으나 물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³⁸⁾ 구로시오가 지나가는 곳에서 나흘을 더 가니 물 색깔이 다시 흰색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드디어 그들이 구로시오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10월 1일[서력 11.11]이 되자 김여휘 일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9월 24일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굶

38) 구로시오[黑潮]가 흐르는 곳은 영양소가 별로 없고 플랑크톤이 적기 때문에 바닷물의 투명도가 높고 검푸른 색으로 보인다고 한다(渡辺美季, 앞의 논문, 18쪽).

주림과 갈증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실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다. 출항하기 전에 뱃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채기는 법이다.³⁹⁾ 김여휘 일행도 제주 별도포를 떠나기 전에 배 안에서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하였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32명이 1주일가량 마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기록은 당시의 긴박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⁴⁰⁾

10월 초하루 이후 배 안에 물이 바닥났다.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물방울이 맺히면 그것을 모아서 마셨다. … (중략) … 맛은 샘물과 같았다. 그런데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이 보시기 절반도 안 되었다. 사람은 많은데 물은 적으니 모두가 목을 축일 수는 없었다.

海水를 끓여서 淡水를 얻는 방법으로⁴¹⁾ 김여휘 일행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4명이 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들 處西도 들어 있었다.”⁴²⁾ 김여휘의 슬픔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된다. “처음부터 물이 많지 않다고 여기지 않아 뱃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⁴³⁾고 그는 뒤늦게 한탄하였다.

39) 여수에서 탈출한 하멜 일행도 출항 전에 물을 채웠다. 1666년 8월 6일(서력 9월 4일) 달이 질 무렵 쌀과 물, 냄비 등을 이웃 주민 몰래 성벽 너머 배가 있는 곳까지 날랐다. 정성일, 앞의 논문(2010b), 93쪽.

40) 十月初一日以後 船中水盡 乃煮海取露而飲 … 味如泉水 而一番所得不過半椀 人多水少 不能徧霑(『記琉球漂還人語』).

41) 其法釜盛海水 中置空器 反釜釜冠 又盛水 其上而煮之 則露滴器中(『記琉球漂還人語』).

42) 渴死者四人 而處西亦在其中(『記琉球漂還人語』).

43) 當初儲水 不爲不多 而舟人濫用 以至於此(『記琉球漂還人語』).

5. 김여휘 일행의 표착과 구조

1662년 10월 4일[서력 11.14] 김여휘 일행은 유구 땅에 닿았다. 제주에서 표류한 지 열 하루만이였다.⁴⁴⁾ 섬 하나를 발견하고 그들이 그곳에 닿을 내린 것이 바로 이 날이였다. 그들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이 ‘琉球國 大島’ 관내라고 했다. 10월 1일 배 안에 물이 고갈된 뒤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일부터 5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갈증으로 숨을 거둔 사람이 모두 네 명이나 되었다. 10월 2일 다섯 살 먹은 여자 아이가 목이 말라 죽었다.⁴⁵⁾ 10월 3일에는 김여휘의 아들 처세[서]가 또 갈증으로 죽었다.⁴⁶⁾ 10월 4일 해남 여인이 목말라서,⁴⁷⁾ 10월 5일에는 崔太白이 갈증 때문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32명 중 28명이였다.⁴⁸⁾

김여휘 일행의 유구 표착일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록이 있다. 어떤 자료에는 김여휘 일행이 유구의 한 섬—琉球國 大島 地界—에 정박한 것이 10월 4일로 되어 있는데,⁴⁹⁾ 다른 자료에는 그들이 배에서 내려

44) 1802년 문순득이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북서풍을 만나 유구 아미미오시마까지 표류하여 닿은 것이 4일만이였다(최성환, 앞의 책, 125쪽). 이에 반해서 1662년 김여휘 일행이 제주 부근에서 서북풍을 만나 유구 아미미오시마에 표착한 것이 11일만이였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주에서 유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로시오[黑潮]를 통과해야만 한다. 김여휘 일행은 제주에서 표류하여 엿새 만에 구로시오를 만났다고 했다. 그들이 구로시오를 빠져나오는 데만 나흘이 걸렸다. 문순득이 김여휘보다 빨리 유구에 닿은 것은 구로시오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차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5) 初二日 … 五歲女兒 因渴致死(「金麗輝等漂海錄」).

46) 初三日 … 金麗輝之子處世[西] 又爲渴死(「金麗輝等漂海錄」).

47) 初四日 … 海南女人 又爲渴死(「金麗輝等漂海錄」).

48) 初五日 … 崔太白又爲渴死 餘存二十八人(「金麗輝等漂海錄」).

49) 明日[10.4]始得一島下碇 乃琉球國大島地界云(「記琉球漂還人語」).

육지에 발을 내딛고서 그 곳이 유구 땅—琉球國 地界—임을 안 것이 10월 5일이라고 했다.⁵⁰⁾ 사실 김여휘 일행의 배가 정박한 시점으로 보면 10월 4일이 틀림없지만, 그들이 유구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은 10월 5일이었다.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인에 의해서 그들이 ‘발견’된 날이 표착일로 정해졌다.⁵¹⁾

10월 5일[서력 11.15] 김여휘 일행 중 생존자를 구조하여 구호해 준 것은 유구인이었다. 그들이 물으로 내려가려 하자, 작은 배 여섯 척이 북쪽 해안에서 날듯이 재빠르게 노를 저어 김여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배의 길이는 겨우 세 발[把]⁵²⁾—약 5.4미터—에 지나지 않았으며, 배 안은 매우 좁았다. 배 위에는 2명씩 앉아서 양쪽으로 노를 째싸게 저었다. 김여휘 일행이 탄 배를 향해 여러 차례 손을 흔들며 부르는 듯했다. 그들이 와서 김여휘 일행을 언덕 아래로 이끌고 간 뒤 그곳에 머물게 했다. 북쪽 해안 가 밑에 배를 대고 물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마지막 사망자인 최태백이 갈증으로 죽고 말았다. 유구인 20여 명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처음에는 흰 죽이 나오다가, 이어서 粘酒[粘米酒]—쌀을 입으로 씹어서 만든 죽—가 제공되었다.⁵³⁾ 그것을 먹고

50) 初五 下陸乃琉球國地界云(『金麗輝等漂海錄』).

51) 김여휘는 대마도에서 조사를 받을 때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 동안 표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7일).

52) 두 팔을 벌렸을 때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를 한 파(把) 또는 한 발이라고 불렀다. 김여휘 일행을 구원하러 온 유구의 飛船 길이가 3파라고 했는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파를 6자 정도로 잡는다면 3파는 대략 5.4미터가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료인데, 이것을 일본어로 ‘히로’라 읽는다.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초기에 1십이 6자[=1.8미터]로 정해졌다.

53) 初五 將下陸 有小艇六隻 搖櫓而來 其疾如飛 導我船入泊岸下 麗輝等相與扶將下陸 琉球人多來救護 先與白粥 繼以粘酒(『記琉球漂還人語』) ; 初五 … 小船六隻 從北岸近來 舟長僅三把 舟內甚狹 無異於大槽模樣 一船上二人分坐 兩傍以手撈櫓捷疾如飛 或遠或近不各逗迫 回舟而

김여휘 일행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10월 7일[서력 11.17] 조선인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가 아마미오시 마 관내 한 섬에서 치러졌다. 김여휘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시신이 유구 풍습으로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신은 수의를 입혀서 앉은 자세로 안장하였다.⁵⁴⁾ 이것은 문순득의 체험을 적은 『표해시말』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앉히고 염을 한다.”⁵⁵⁾ 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묘는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했으며, 단지 돌 하나를 세웠다고 한다. 사방에 돌과 흙을 쌓고 그곳이 무덤임을 알 수 있게 돌을 세워 놓은 모양이다.⁵⁶⁾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각기 하나의 돌 상자를 땅 속에 만들어 놓고 위를 석회로 봉하며, 옆에는 석문이 있어 장사를 지낼 때 관을 상자에 넣고 문을 닫는다.”⁵⁷⁾고 적은 『표해시말』과 차이가 있다. 아마도 이때 조선 표류민의 묘는 약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去 向我國船 每々揮手作招呼之 此舟○息 已隔前岸 我國船尾而從立
泊於北岸 下未及○陸 崔太白又各渴死 餘存二十八人 ○挽扶持僅々下
陸 琉球人二十餘名 荷擔○○爭來救援 指視井泉 以解涸 我人等始死
開口噓氣○ 琉球人饋以白粥 繼以粘米酒(「金麗輝等漂海錄」, ○은 관
독 불명).

- 54) 盡解小斂衣衾 坐屍坎中(「記琉球漂還人語」) ; 盡解小斂 坐屍坎中(「金麗輝等漂海錄」).
- 55) 정약전·이강희, 『柳菴叢書』(신안군향토사료지, 신안문화원, 2005), 82쪽 ; 최성환, 앞의 책, 188쪽.
- 56) 不封土 但立一石(「記琉球漂還人語」). 封土不取成 墳立四塊石土 四墳上以表之石(「金麗輝等漂海錄」).
- 57) 정약전·이강희, 앞의 책, 82쪽 ; 최성환, 앞의 책, 188쪽, 192쪽.

6. 김여휘 일행의 귀국과 송환 경로

1) 유구 아미오시마에서 사쓰마로 이송

10월 8일[서력 11.18] 김여휘 일행은 아미오시마[奄美大島]로 移送되었다. 이것을 보면 김여휘 일행의 최초 표착지는 아미오시마 본섬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작은 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섬으로 옮겨진 김여휘 일행은 그 뒤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유구 → 일본[사쓰마, 나가사키, 대마도] → 조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그들의 송환 경로로 활용되었다. 이 길은 조선으로 들어온 ‘고구마의 길’과 일치한다.

고구마라는 말은 본디 대마도 방언 ‘고코이모[孝行芋]’에서 온 외래어였다. 孝行芋라는 한자 표기는 ‘먹을 것이 모자랄 때’ 효자노릇을 한 뿌리식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고코이모’ → ‘고귀마’ → ‘고구마’로 불리기 시작하여,⁵⁸⁾ 지금은 고구마가 한국어 표준말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고구마의 표준어가 사쓰마이모[薩摩芋, 甘藷]이다. 이것은 ‘사쓰마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뿌리식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쓰마로 들어간 이 뿌리식물은 중국에서 대만에 전해진 것이 다시 유구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것이 류큐이모[琉球芋]로 불리기도 했다. 그것이 대마도에 전해진 것은 1715년(正德 5)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도에서 甘藷翁으로 유명한 하라

58) 고구마를 가리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고금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고금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甘藷 一名朱藷 又藩藷 又朱薯 又紅山藥 今云赤芋 俗云琉球芋 又長崎芋 我東以盛於古今島 稱古今伊, 『오주연문장전산고』 萬物篇 草木類 穀種 北藷辨證說). ‘고금이’가 ‘고구미’가 되고, 그것이 ‘고구마’로 바뀐 것인지도 모른다.

다 사부로에몬[原田三郎右衛門, ?-1740]이 직접 사쓰마로 가서 종자를 구해온 것이 대마도에 고구마가 전래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50년이 지난 1764년에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상륙하였으니,⁵⁹⁾ ‘고구마의 길’이 유구로 표류했던 김여휘 일행의 송환 경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해를 넘겨 1663년 3월 29일[서력 5.6] 아마미오시마에서 두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사쓰마로 향할 때까지, 그들은 약 반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특히 이곳에서 김여휘가 이른바 長吏와 필담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김여휘는 아마미오시마에서 머물렀을 때 지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겼다. 그에 따르면 쌀은 하루에 한 사람당 1되[升]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닻새 간격으로 반찬거리 등이 함께 지급되었는데, 간장[醬] 7되, 소금 4되, 건어 1근, 채소 2근, 소주 1사발[椀], 담배 1근씩이었다. 그리고 술과 고기가 틈틈이 지급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김여휘는 유구에서 쓰는 되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조선 되의 4배 정도 유구 되가 더 크다고 했다. 이것은 아마도 유구 측이 조선 표류민에게 ‘1되라고 주는 쌀의 양’이 ‘조선의 4되 분량’에 필적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일본의 1되 용량이 조선의 2.85되 정도 되었기 때문에,⁶⁰⁾ 일본 되와 유구 되의 용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59) 1764년 통신사 正使 曹曦이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얻어 왔다. 갑신년(1764) 6월 18일 대마도 西山寺에 머물던 조엄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甘藷 또는 孝子麻라 불린다. 倭音으로 古貴麻라고 하는 이것은 ….”(조엄, 『海槎日記』, 『국역해행총재』7, 민족문화추진회, 1975, 311쪽). 바로 이것이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공식 기록이다. 그런데 김여휘는 조엄보다 100년 전에 직접 고구마를 맛보았다.

60) ‘일본의 1되를 조선의 2.85되’로 본 것은 “조선의 쌀 1되가 일본의 0.35되”라는 다음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 『薩州秋目之者三人乘一艘全羅道興陽縣三島德興江漂流記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2839) ; 『交隣提醒』 ; 『역주 교린제성』(雨森芳洲 지음, 한일관계사학

면, 김여휘의 눈에 유구 되가 조선 되는 3~4배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마미오시마의 위치

4월 8일[일본 4.7, 서력 5.14] 김여휘 일행은 사쓰마의 야마카와[山川]에 도착하였다. 사쓰마로 오는 도중에 표류하여 뒤흔들었던 나머지 한 척의 배가 그들과 합류한 것은 5월 1일[서력 6.6]이었다. 사쓰마에서 조선말을 할 줄 아는 통역이 김여휘 일행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른바 朝鮮語通事인 李國이라는 조선인 피로인의 후예가 바로 그였다. 이국은 자신의 아버지 李連弘이 한양에서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경상도 진주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국은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자신이 조선인이다”는 말도 했다.⁶¹⁾ 사쓰마로 표류한 조선인

회 편, 국학자료원, 1998), 55쪽(원문 102쪽); 『象胥紀聞』; 『象胥紀聞—對馬島通事가 본—18세기 한반도문화』(小田幾五郎 지음, 栗田英二 역주, 이회문화사, 2005), 144쪽).

61) 李國言 我父李連弘 本朝鮮人 居京城 母晉州人也 丁酉之難 并被虜而來 我雖生於此地 實朝鮮人也 (『記琉球漂還人語』); 李國言 我父 朝鮮

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로인의 후예인 조선어통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일은 그 뒤에도 있었다.⁶²⁾ 이국을 거느리고 현장에 온 사쓰마번[薩摩藩]의 大夫官이 조선 표류민에 대한 조사를 총지휘하였다.

2) 사쓰마→나가사키 이송과 대마도의 김여휘 일행 송환

5월 18일[서력 6.23] 사쓰마의 가타우라[片浦]를 출발한 김여휘 일행의 배가 나가사키에 닿은 것은 이튿날인 19일이었다. 21일에는 일본 측이 김여휘 일행을 대마도 배로 옮겨 실었다. 그러자 사쓰마의 조선어통사 이국과 유구국의 호행인은 김여휘 일행과 작별하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5월 25일[서력 6.30] 나가사키를 출항한 김여휘 등 28명(남자 24명, 여자 4명)은 이치카와 기자에몬[市川喜左衛門]의 인솔 아래 이틀 뒤인 27일 대마도에 도착하였다.⁶³⁾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조사가 대마도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京居 李連弘 我母 慶尙道 晉州人 曾於丁酉亂 被虜而來 我雖生於此地 [日本] 其實朝鮮人也(『金麗輝等漂海錄』).

62) 1736년 3월 14일 순천 어부 28명(남자 18, 여자 10)이 사쓰마 구시키노[串木野] 포구로 표류하였을 때, 그들을 問情하러 갔던 ‘조선인 마을’ 나에시로가와[苗代川]의 李欣達이 당시 제2대 朝鮮語通事를 맡고 있었다(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인적 교류」, 『남원도에문화와 일본』, 남원시전통문화육성보존회, 2010). 그런데 1663년 李國이 이혼달보다 73년 먼저 김여휘 등 해남·제주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하였다. 이것은 李利官이 쇼야[庄屋]에 취임한 1675년보다도 12년이나 앞선 시기의 일이다(德永和喜,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2005). 그리고 사쓰마 지역으로 표류해 온 조선인을 나가사키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조선어통사를 존속시켰다고 알려져 있다(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2010, 274~275쪽).

63) 『(國元)毎日記』, 寬文 3년(1663) 5월 27일.

5월 27일 대마도의 일기에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김여휘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1】 참조).

【사료 1】 1663년 5월 27일 대마도 기록

나가사키에서 조선 표류민 남녀 28명을 대마도의 조녕 이치카와 기자에몬이 데리고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표류한) 사정을 물었더니, “(우리들은) 조선국 전라도 해남현이라는 곳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축년[1661]과 인년[1662] 두 해에 걸쳐 조선국에 기근이 들어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게 되자, 가재 등을 처분하고 처자를 동반하여 남녀 32명이 지난해[1661] 6월 11일 배를 띄워서 청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만, 작은 섬이라서 오래 머무르기가 어려워 동 29일 제주도라는 곳으로 가서 걸식하고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동년[1662] 9월 24일 그 섬[제주도]에서 출선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큰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10월 5일 유구로 표류했습니다. 이때 배 안에 물이 다 떨어져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목말라 죽고, 나머지 남자 24명 여자 4명이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쓰다히라 오스미 태수께서 나가사키로 사신 두 명을 붙여서 보내주었는데, 정청에서 조사를 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조선인이 틀림없음이 밝혀지자, 이쿠도 오에몬에게 넘겨주고 이치카와 기자에몬을 딸려 보내서 이곳[대마도]으로 건너왔습니다. 정청과 관소에서 통행증을 발급해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 곧 마치겠습니다.”⁶⁴⁾

64) 一 同廿七日、晴天、南風

○ 長崎より朝鮮漂流人男女貳拾八人當所町人市川喜左衛門召連參着候、様體相尋候處、朝鮮國全羅道之内海南縣と申所之百姓ニ而候、然所ニ丑寅兩年朝鮮國饑饉ニ付在所へ居住不罷成家財等を致沽布妻子召連男女人數三拾貳人去年六月十一日致出船青山嶋と申所へ罷越候へ共、小嶋ニ而久々逗留難成、同廿九日濟州嶋と申所へ可罷越乞食候體ニ而罷有、同年九月廿四日彼島出船在所へ可罷歸と志候處ニ、於洋中遭難風十月五日琉球へ漂着候、此節船中ニ而水盡男貳人女貳人渴死、殘テ男廿四人女四人着岸候由ニ而、松平大隅守殿より長崎へ使者兩人差添被相送處ニ、御政所より御僉議被成口書等被仰付候而朝鮮人ニ無紛ニ相極、幾度大右衛門ニ御渡被下候を市川喜左

나가사키에서 대마도로 건너오자마자 대마도 측은 김여휘 등 전라도 표류민을 심문하였다. 이때 김여휘 등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작년 [1661] 6월 11일 해남에서 청산도로 갔다가, 그곳에서 같은 달[6월] 29일 제주도로 들어갔다”고 하며, “그해[1662] 9월 24일 제주에서 배를 띄워 다시 해남으로 돌아오려다가 바람을 만나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10월 5일 유구에 표착하였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사쓰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대마도에 닿은 바로 그날 조사가 이루어졌다.

5월 28일 대마도의 일기에는 이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결정 사항이 적혀 있다. 하나는 그들을 조선으로 호송하고 갈 사신—漂人領來差倭, 漂差使—이 오우라 쇼자에몬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以酤庵에서 실시하는 표류민 臨檢에 관한 것이다(【사료 2】 참조).

【사료 2】 1663년 5월 28일 대마도 기록

- 이번에 나가사키에서 (대마도로) 온 조선 표류민을 오우라 쇼자에몬이 그 나라[조선]로 데리고 건너가도록 오늘 지시가 내려짐.
- 憲長老와 瞻西堂 쪽에 내일 조선 표류민을 불러서 (표류) 경위를 들으시도록 전하였더니, 서당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장이고, 현장로는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답장임.⁶⁵⁾

여기에 등장하는 憲長老는 “建仁寺 소속 永源院의 顯令 通憲으로

衛門相添當地へ相渡ス、從御政所關所之御切手等被下持來ル、頓而進上之筈。『(國元)毎日記』, 寛文 3년(1663) 5월 27일.

65) 一 同廿八日、晴天、辰巳風

- 今度從長崎來着後朝鮮漂流人大浦小左衛門彼地へ被連渡候様にと今日申付ル。
- 憲長老瞻西堂へ明日朝鮮漂流人召寄可申候間様體御聞可被成由申進之候處、西堂御事御來儀可被成由御返事憲長老御儀御出被成間敷由御返事也。『(國元)毎日記』, 寛文 3년(1663) 5월 28일.

역대 이정암 輪番僧 가운데 제22세 제20번에 해당한다. 그의 임기는 寬文 원년 신축[1661] 6월부터 동 3년 계묘[1663] 5월까지였다.”고 한다.⁶⁶⁾ 그런데 이때 헌장로는 다른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고, 瞻西堂이 참석하겠다는 답변이 전달되었다. 첨서당은 “東福寺 소속 龍眠院(菴)의 大華(太華) 令瞻으로 제23세 제21번 이정암 윤번승에 해당한다. 그의 임기는 1663년 5월부터 1665년 4월까지였다.”고 알려져 있다.⁶⁷⁾ 즉 헌장로의 후임이 첨서당이였다. 두 사람이 이때의 일기에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윤번승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서로 교대할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조선 표류민의 사정을 묻고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이정암 윤번승의 기본 업무 중 하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⁸⁾ 幕府가 파견한 이정암의 승려가 김여휘 일행을 불러 사정을 청취한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전체 28명(남자 24, 여자 4) 가운데 5명(남자 3, 여자 2)만 이정암에 출석하였다. 이 다섯 명 중에 김여휘가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김여휘와 같은 해남의 선비 이정시와 제주 사람 남인이 다섯 명 속에 들어 있었다. 김여휘와 이정시, 남인 이렇게 세 사람은 조선 정부의 조사기록인 『표인영래등록』에도 함께 등장한다.

【사료 3】 1663년 5월 29일 대마도 기록

○ “조선 표류민의 (표류)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첨서당이 참석한 자

66) 憲長老는 建仁寺 제306대 주지를 지냈으며, 天和 원년[1681] 12월 22일에 입적하였다(김종욱, 「이정암 윤번(교대)에 대하여(상)—조선후기 일본 徳川幕府와의 교섭사 자료—」, 『월간 도서관』 제28권 제5호 통권 제180호, 국립중앙도서관, 1973, 82쪽).

67) 瞻長老라 불리는 그는 東福寺 제241대 주지를 지냈다(김종욱, 위의 논문, 82쪽).

68) 池內敏, 「以酤庵輪番制考」, 『歴史の理論と教育』 129・130, 名古屋歴史科學研究會, 2008, 47~48쪽.

리에서 표류민을 불러 놓고 넓은 방에 줄지어 앉아 표류민이 대답한 것을 하타지마 고로베를 통해서 보고함. 서당이 넓은 방으로 나오셔서 물으시고, 도시요리들도 와서 그 뒤를 이어서 (표선 표류민들에게) 구술서를 쓰게 하고 서당이 읽어 보심.”⁶⁹⁾

〈표 1〉 김여휘 일행의 진술서(대마도에서 작성)

口書之寫											
朝鮮國國運不行兩年大大旱惹民不	聊生故臣等全羅道海南縣人生計板	蕩書賣家藏田地賀穀事前年	六月十一日乘船發向青山賀穀乞食而小	島之中不能久住故六月廿九日間移去濟	州嶋或賣或乞艱以得生同年九月廿四日	還鄉之際艱至中流爲兆風所十二日漂	湊洋中朝鮮人男女并三十二人內男二人	女二人則船中水渴而死於船中而男二十四人	女四人并二十八人則十生九死艱得生路十月	初五日到得琉球國大島則大嶋長吏慈仁	愛人多般求活故臣等得至此
國大蒙慈仁廣活	因拯鳴恩臣等一	日之內萬死無恨									

자료 : 『(國元)每日記』(長崎縣立 對馬歷史民俗資料館 宗家文庫 日記類 Aa-1 14)寬文 3年[1663] 5월 29일.
주 : 得은 得의 誤記로 보임.

5월 29일 대마도 일기에 【사료 3】의 기록이 보인다. 이 날은 날씨가 맑았으며 동풍이 불었다고 한다. 이정암 윤번승인 침서당이 주재하

69) 一 同廿九日、晴天、東風
○ 朝鮮漂流人樣體御聞可被成由二而、瞻西堂御來儀被成漂流人召寄候て廣間之座ニ並居漂流之様子返事嶋嶮五郎兵衛を以申上ル、西堂御廣間ニ御出御聞被成年寄中も罷出承其後口書仕せし而西堂懸御目。『(國元)每日記』, 寬文 3年(1663) 5월 29일.

였고, 대마도의 도시요리[年中]가 배석하였으며, 조선어를 구사하는 통역이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여휘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 1>의 구치가키[口書] 즉 진술서이다.⁷⁰⁾

김여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라도 표류민의 구술서 내용 가운데, “지난 해[1661] 6월 11일 배를 타고 청산도로 향하여 (그곳에서) 곡식을 사고 걸식을 하다가, 작은 섬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서 29일 제주도로 옮겨갔다.”고 한 부분은 현재 남아 있는 두 종류의 표해록 내용과 어긋난다. 그런데 “금년[1662] 9월 24일 고향[해남]으로 돌아오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10월 5일 유구국 대도에 닿았다”고 한 표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두 기록과 모두 내용이 일치한다.

김여휘 일행의 진술서를 대마도 담당자가 받아놓고 그것을 매일기에 옮겨 적어 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위와 같이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그것을 받아두었으며, 첩서당 후

70) “조선국의 국운이 좋지 않아 두 해에 걸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비롯한 전라도 해남현 사람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책을 버리고 집과 땅을 팔아 곡식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1661] 6월 11일 배를 타고 청산도로 향하여 (그곳에서) 곡식을 사고 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서 29일 제주도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사기도 하고 걸식도 하였지만 살기가 어려워서, 금년[1662] 9월 24일 고향[해남]으로 돌아오다가 바람을 만나 12일을 표류하였습니다. 조선인 남녀 32명 가운데 남자 2명과 여자 2명은 배 안에서 물이 떨어져 갈증으로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남자 24명과 여자 4명 총 28명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렵사리 살아남아, 10월 5일 유구국 대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대도의 장리가 인자함과 사랑으로 대해주고 여러 가지로 살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라에 도착해서 인자함을 크게 입어 살길이 넓혀졌으며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사이에 만 번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었습니다.”『(國元)每日記』, 寬文 3년(1663) 5월 29일.

[묵]서원에 들르게 하여 요리상을 내놓음. 표류민 남자 24명 가운데 대표격인 세 사람, 김여휘, 이정시, 남인과 여자 두 사람을 그곳으로 가게 하여 요리를 대접하고, 표류의 경위는 진술서에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7일은 나가사키에서 돌아온 날임. 서둘러서 적음.”⁷¹⁾

6월 15일[서력 7.19] 대마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후쥬[府中]를 출발한 김여휘 일행은 21일 최북단 와니우라[完浦, 鰐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렸다. 김여휘 일행이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닿은 것은 7월 5일[서력 8.7] 밤이었다. 이튿날인 6일 아침 일찍 배에서 내려 물으로 잤는데, 왜관의 관수와 통사가 조사를 한 뒤 부산첨사에게 넘겼다. 7일에는 동래부의 조사가 다시 이어졌다. 조사가 끝나자 동래부사가 쌀[白米] 1석을 비롯하여 식료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조선 땅을 밟은 지 20일 뒤인 7월 25일[서력 8.27] 김여휘 일행은 드디어 고향 해남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한을 품고 그해 4월 17일 이미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한다(<표 2> 참조).⁷²⁾

〈표 2〉 해남 김여휘 일행의 유구 표류와 송환 일정(1662.9.24-1663.7.25)

연	월	일	장소	내용	曆 比 較	
					일본	서력
1661 신축 현종 2 寬文 元	A	6 11	해남 → 청산도	호남에 대기근이 들어 해남 김여휘 등이 집과 전답을 팔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청산도로 들어감	6.10	7.6
		6 29	청산도 → 제주	청산도가 작은 섬이어서 그들이 제주도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곡식을 구매하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6.28	7.24

71) 右之通ニ仕セ請取置、瞻西堂黑[墨]書院ニ御通被成御膳出ス、漂流民男貳十四人内頭分之者三人金麗輝李挺時南仁女二人御寄着ニ而料理御振廻之、漂流之様體ハ口書ニ有之、殊去廿七日長崎より參着之日、慌々記之。『(國元)毎日記』, 寬文 3年(1663) 5월 29일.

72) 海南舊居生妻 已於四月十七日 抱懷而死(「金麗輝等漂海錄」).

연	월	일	장소	내용	曆 비교	
					일본	서력
	B	9	18	해남-남당포 김여휘, 김처제, 이남준 등 3인이 강진 상인 李介山의 배로 남당포에 닿음		11.9
		9	19	남당포 승선		11.10
		21	제주 별도포	아침 일찍 제주 별도포에 닿아 물으로 내려감		11.12
1662 임인 현종 3 寬文 2	9	24	제주 별도포	상인 이덕쇠(李加叱金)의 배를 얻어서 제주 사람 남인 등과 함께 총 32인이 아침에 제주 별도포 출발, 서북풍 만나 남쪽으로6일간 표류, 구로시오 만났다가 4일을 더 가니 물색같이 흰색으로 돌아옴		11.4
		1		배 안에 있던 물이 떨어짐,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서 나누어 먹음, 이때 여휘의 이들을 포함하여 4명이 죽음		11.11
	10	4	유구 오시마	유구국 오시마(大島) 관내에 닿을 내림		11.14
		5	유구 오시마	물으로 내려가려 하자 유구인이 구호		11.15
		7	유구 오시마	시신 4구 매장		11.17
		8	유구 오시마	배에 싣고서 오시마로 옮김		11.18
		29	유구 오시마	長吏가 와서 나가사키, 대마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알려줌		12.9
	2		유구 오시마	장리가 글에 써서 안부를 묻고 목면 2段 내려줌		3-4
1663 계묘 현종 4 寬文 3	3	2	유구 오시마	장리가 府中에서 3인(여휘, 정시, 이덕쇠)에게 잔치 베풀어주고 노래를 부르게 함		4.9
		14	유구 오시마	2척에 分乘 다네다 이치베에 種田市兵衛 등이 호행		4.21
		29	유구 오시마	출항 때 장리와 작별, 1척 표류		5.6
	4	1	일본 사쓰마	여휘 등이 일본 사쓰마(薩摩) 소속 야쿠시마(屋久島)에 정박	3.30	5.7
		8	일본 사쓰마	석양에 여휘 등이 야마카와(山川)에 도착(호행자가 本州에 보고, 여러 날 뒤大夫官과 통사 李國이 함께 배로 와서 조사)	4.7	5.14
	5	1	일본 사쓰마	표류 선박 1척 도착, 여휘 등과 합류		6.6
		3	일본 사쓰마	대부관이 다시 점검, 한 배에 태워 다른 곳		6.8

연	월	일	장소	내용	曆 비교	
					일본	서력
				으로 이송		
		9	일본 사쓰마	배를 띄워 가타우라(片浦)도착,바람 기다리며 체류		6.14
		18	일본 사쓰마	가타우라(片浦)에서 닻을 올리고 출항		6.23
		19	일본 나가사키	나가사키 도착		6.24
		21	일본 나가사키	대마도 배로 옮겨 타고, 이국과 유구 호행인과 작별, 여회가 오시마 장리에게 감사의 글을 보냄		6.26
		25	일본 나가사키	나가사키 출발 (5/26 雪島 숙박)		6.30
		27	일본 대마도	대마도(府中) 도착, 표류민 조사		7.2
		29	일본 대마도	대마도 以酤庵이 표류 경위 청취,음식 대접		7.4
	6	3	일본 대마도	대마도가 예물(細布, 煙草, 煙竹) 지급		7.7
		15	일본 대마도	(府中) 출발		7.19
		(21)	일본 대마도	와니우라(院浦) 도착해서 바람 기다림		(7.25)
	7	5	부산	밤에 부산포 정박		8.7
		25	해남	해남으로 돌아옴.여회의 치는 월 1월에 사망		8.27

자료 : 1661년은 『(國元) 毎日記』 일본 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宗家文庫 日記録a-1 14 寛文 3년(1663) 5월 29일(A), 『金麗輝等漂海錄』(B). 1662-63년은 『海外聞見錄』, 『記琉球漂還人語』(일본 天理大學圖書館 今西文庫, 0929-11), 『金麗輝等漂海錄』(개인 소장).

주 : 曆은 조선력(중국력)을 기준으로 하며, 표의 맨 오른쪽에 일본력과 서양력 그레고리 율 표기, 일본력은 조선력과 다를 때만 기재함. 역의 비교는 内田正男 編著, 『日本曆日原典』雄山閣, 1975, 376쪽 ; 内務省 地理局, 『三正綜覽』, 帝都出版社, 1932, 419~42쪽 참조. 음력과 양력 변환 계산은 한국천문연구원(www.kasi.re.kr) 홈페이지와 일본 こよみのページ(koyomi.vis.ne.jp) 검색 참조.

7. 맺음말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표해록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편자 미상의 『해외문견록』(일본 天理大學 도서관 소장)이라는 책 속에 「記琉球漂還人語」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다. 이것은 김여휘가 쓴 日錄을 바탕으로 지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김여휘가 유구 아마미오시마로 표류했다가 돌아온 일을 자신이 일기로 남긴 듯하다. 다른 하나는 역시 편자 미상인 책(개인 소장)에 「金麗輝等漂海錄」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 글이다. 제목 속에 ‘김여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표해록의 제목은 김여휘 본인이 붙인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누군가가 김여휘의 ‘일기’를 필사한 다음, 그것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것이 아닐까?

아무튼 김여휘의 일기 원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일기에서 나온 두 종류의 자료는 모두 조난자 쪽의 기록이다.⁷³⁾ 그래서 이것을 ‘김여휘의 표해록’으로 명명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김여휘의 표해록에는 그가 머물렀던 유구 아마미오시마에 관한 것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 가운데 고구마에 관해 묘사한 기록도 보인다. 김여휘는 그것을 牛毛라 적었다. 고구마의 琉球 방언이 ‘운무’이고 아마미[奄美] 방언이 ‘한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⁷⁴⁾ 그가 적은 ‘우모’는 유구 방언[운무]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의 책에는 牛尾라고 적혀 있다.⁷⁵⁾

73) 이 밖에 成海應의 『研經齋全集』에 김여휘의 표해록 내용 중 일부가 실려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와 渡辺美季, 앞의 논문, 17쪽 참조.

74) 渡辺美季, 위의 논문, 18쪽.

75) “현종 4년 계묘년에 남해현민 김여휘 등이 유구 오시마[大島]로 표류했을 때 채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우미’라 불렀다.”고 적은 것이 그것이다 (我顯廟四年癸卯 南海縣民金麗輝等 漂至琉球大島 有一菜 名曰牛尾

아무튼 이것은 조선인의 해외 표류 경험이 구전을 통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표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김여휘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무사히 되돌아온 무안과 강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에서도 표류에 대한 기억의 축적과 재생산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같은 전라도 출신인 김여휘(1662년)와 문순득(1802년)의 유구 아마미오시마 해난사고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여휘의 표해록이 지니는 사료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조사자 쪽 기록인 ‘조사기록’과 조난자 쪽 기록인 ‘표해록’이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된다면, 김여휘 일행의 활동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라도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새겨놓은 海域史와 地域史가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투고일 : 2012. 10. 30 심사완료일 : 2012. 11. 30 게재확정일 : 2012. 12. 8

皮赤肉白 蒸食 味如薯蕷 最宜久飢 雖過食不傷人云,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 초목류 곡종 북저변증설). 그런데 여기에서 ‘남해현민’은 ‘해남현민’을, ‘우미’는 ‘우모’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사료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동문회고』 『변례집요』 『표인영래등록』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엄, 「海槎日記」(『국역해행총재』 7, 민족문화추진회, 1975)

『海外聞見錄』, 「記琉球漂還人語」(일본 天理大學圖書館 今西文庫, 제2678호 0929-11)

『金麗輝等漂海錄』(개인 소장)

『(國元)毎日記』 寛文 3년(1663) 5월(일본 長崎縣立對馬歴史民俗資料館 宗家文庫 日記錄 Aa-1 14).

『薩州秋目之者三人乘一艘全羅道興陽縣三島德興江漂流記錄』(국사편찬위원회 대마도증가문서 기록류 No. 2839)

『交隣提醒』(雨森芳洲)

『역주 교린제성』(雨森芳洲 지음, 한일관계사학회 편, 국학자료원, 1998)

『象胥紀聞』(小田幾五郎)

『象胥紀聞—對馬島通事가 본 18세기 한반도문화—』(小田幾五郎 지음, 栗田英二 역주, 이회문화사, 2005)

2. 논저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김종옥, 「이정암 윤번(교대)에 대하여(상)—조선후기 일본 德川幕府와의 교섭사 자료—」, 『월간 도서관』 제28권 제5호 통권 제180호, 국립중앙도서관, 1973.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서미경, 『홍어장수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 북스토리, 2010.

손승철, 「朝·琉 교린체제의 구조와 특징」, 『조선과 유구』,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신동규,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2007.
- 이훈, 「조선후기 표민의 송환을 통해서 본 조선·유구 관계」, 『사학지』 27, 단국대학교 사학회, 1994.
-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정성일, 「일본인으로 위장한 유구인의 제주 표착—1821년 恒運 등 20명의 표착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37, 한일관계사학회, 2010a.
- 정성일, 「교류의 경로와 풍경」,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0b.
-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인적 교류」, 『남원도예문화와 일본』, 남원시전통문화육성보존회, 2010c.
- 정약전·이강희, 『柳菴叢書』, 신안군향토사료지, 신안문화원, 2005.
- 최성환, 「『유암총서』의 내용과 ‘문순득’ 재조명」(정약전·이강희, 『柳菴叢書』, 신안군향토사료지, 신안문화원, 2005).
-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2012.
- 하우봉, 「문물 교류와 상호 인식」, 『조선과 유구』,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 『조선과 유구』,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헨드릭 하멜 저, 김태진 역,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1653~1666』,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 헨드릭 하멜 저, 이병도 역주, 『하멜표류기—附 朝鮮國記—』, 일조각, 1954.
- 內務省 地理局, 『三正綜覽』, 帝都出版社, 1932.
- 內田正男 編著, 『日本曆日原典』, 雄山閣, 1975.
- 徳永和喜,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2005.
- 渡辺美季, 「朝鮮人漂流民の見た「琉球」—1662-63年の大島—」, 『沖縄文化』 46-1, 2012.
- 劉序楓, 2004, 「『漂海錄』の世界—1802年に琉球・呂宋に漂着した朝鮮人の歸國事例を中心に」,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海域と港市の形成、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上)』,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宝案研究』9, 1998.

李薰(松原孝俊・金明美 譯),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の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歴代宝案研究』8, 1997.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池内敏, 「以酤庵輪番制考」, 『歴史の理論と教育』129・130, 名古屋歴史科學研究會, 2008.

河宇鳳・孫承喆・李薰・閔德基・鄭成一 著, 赤嶺守 監譯, 金東善・神谷智昭・陳碩炫・吳明花・前田舟子 譯, 『朝鮮と琉球—歴史の深淵を探る—』, 榕樹書林, 2011.

劉序楓, 「清代前期的朝鮮與琉球—以朝鮮人的琉球漂流紀錄爲中心」, 『第十二屆中琉歷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香港 北京圖書出版社, 2010.

【ABSTRACT】

Drifting to Ryukyu and the Repatriation Route
of Kim Yeohwi, a Haenam County Scholar,
in 1662~1663

Chung, Sungil

In 1662, thirty-two Koreans, including Kim Yeowhi, who was a classical scholar in Haeman County, and Jeju islanders, encountered an accident at sea and their ship drifted to Amami Oshima island, in Ryukyu. They were rescued by Ryukyuan islanders on the fifth day of the tenth month(or November 15 in the Gregorian calendar), after having departed for Haenam, their home town, from the Byeoldo port in Jeju island on the twenty fourth of the ninth month(or November 4 in the Gregorian calendar), but having been set adrift near Chuja island by a northwester. Four people among them died of thirst before the group was rescued. These twenty-eight survivors were sent from Ryukyu to Satsuma domain in southern Kyushu in Japan, and then to Tsushima domain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Nagasaki. Kim Yeowhi and his fellow passengers were immediately interrogated upon their arrival in Tsushima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fifth month(or July 2 in the Gregorian calendar) in 1663. They returned to Joseon, at the

Busan port, on the fifth day of the sixth month(or August 7 in the Gregorian calendar), after clearing the investigations in Japan. They also had to undergo questioning at the Japan House(K. Waegwan), a compound where Tsushima islanders resided, in Busan and investig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being delivered to Busan military base and the Dongnae County office. Kim Yeowhi and his colleagues returned to Haenam County, on the twenty-fifth day of the seventh month(or August 27 in the Gregorian calendar). However, Kim's wife had died on the seventeenth day of the fourth month(or May 23 in the Gregorian calendar). This maritime accident is useful for comparative study with the first voyage of An Yong-bok to Japan, which related to the territory dispute over Ulleung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in 1663, and the drifting of Mun Sun-deuk to Amami Oshima in 1802.

【Key Words】

Kim Yeowhi, maritime accident, drifting, Joseon, Korea, Haenam County, Jeju island, Ryukyu, Amami Oshima island, Japan, Satsuma domain, Tsushima domain, Nagasaki